

**펜타곤** 소식통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담당 고문이며 국가안보회의 의장인 Brent Scowcroft와 前 행정관료이며, 변호사인 부시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인 James Woolsey가 백악관 외교군사정책에서 입안자이며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당분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베이커 국무장관과 Cheney 국방장관이 외교군사정책방향에 대한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갖고있지 못한것은 아니지만, 현재 베이커는 외교전략과 정책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Cheney는 신임 국방장관으로서 국방성에서의 그의 진로와 업무파악에 주력하고 있기때문에 Scowcroft와 Woolsey가 연구한 공동보고서가 정책방향의 기초가 되고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세계각처의 문제에 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정부부처간의 의견취합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4월에 나왔으며 Scowcroft와 Woolsey가 제안하였다. 부시는 소련과 달리 강력한 주도역할 대신에 현상유지를 유지하며, 전력을 경주하기보다는 관망자세를 유지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개혁을 주장하며 최근 유럽에서 약 50만명의 소련군을 철수하기로한 소련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수동적인 안보정책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래 세계적으로 평화지향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폴란드는 자유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카스트로는 아직도 마르크스사상의 신봉가이긴 하나 더이상 공산지도자들 사이에서 혁명가가 아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사상가이며 진보주의자이다. 동시에 소련 최초의 아프카니스탄 점령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어떠한 비군사적 기구도 설치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볼때 미국의 안보에 대해 소련이나 혹은 다른 어떠한 곳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망적인 안보정책에는 몇가지의 의문점이 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만약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소련이 세계점령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 외국이 원하지 않는 점령자가 되어본 적이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철수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없다. 많은 서구유럽 국가들과 일본, 한국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않다.

한 전문가는 소련이 지금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정치게임에서 소련이 조치를 취할 차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상유지에 대한 또다른 시각은 다음과 같다. 취임 첫해의 부시행정부의 외교 및 국방정책에서 현상유지 구조는 소극적 조치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도적인 첫번째 조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트루먼 대통령시절부터 거의 모든 행정부가 대통령 당선후 안보정책을 급격히 변화시켜왔기 때문이다. 당장에는 중대한 위협이 없기때문에 위험기간 그 자체가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Scowcroft와 Woolsey의 보고서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국방성의 이익은 전쟁억제정책에 새로운 정책을 늦게 취함으로써만 얻을수 있을 것이다.

예산적자와 무역수지 불균형에 의해 발생된 지속적인 예산문제와 시기적절하지 못한 국방공약에 기인한 결정유보조치에 의하여 국방성은 군사력 감축이나 전력증강중 어느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레이건시대의 미약한 영향력때문에 새로운

국가안보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한것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것이 추진되려고 한다면 강력한 백악관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중 한가지는 미국과 해외군사 공동협력계획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계획에는 2개국 내지 그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공동협력기간동안 국가간 거래될 수십억불은 미국 안보에 주요한 동맹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NATO와 다른 지역연합체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술우위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국방성의 방산장비 획득과정 합리화를 도와주는 직접적인 대통령 역할의 중요성을 부시 대통령이 고려한다면 조언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는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데 따른 너덕하지 않은 국방예산때문에 신임 대통령에게는 방산장비 획득과정의 합리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국방안보의 필요성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일은 백악관의 강력한 추진 없이는 불가능하다.

## 갈륨과 기타 중요자료

<Critical Technologies Plan>이란 보고서에 국방성이 미래의 효과적인 군사력 발전을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실려있다.

이 보고서에는 미 국방성이 육·해·공군의 현대화와 적군의 군사력억제를 위해 미국이 충분히 보유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22개의 목록이 실려있다.

(〈국방과 기술〉 89/5월호 p. 71 참조)

미 국방성이 채택한 이 22개의 기술목록중에서 중요한 것은 微小電子장비, VHSIC와 그와 관계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사

용하는 컴퓨터화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실리콘을 대신할 갈륨을 들수 있다.

현재 미 국방성은 微小電子장비와 반도체 제조공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까지 30억 달러를 책정해놓고 있다.

또한 갈륨칩 생산은 가격면에서도 저렴하다. 갈륨은 외부의 일정한 방사선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갈륨은 정보전달속도가 실리콘보다 5배가 빠르다.

## 한 국

오는 11월중에 미국방위준비협회가 주최하는 한·미방산회의 및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30여년동안 자유세계의 방위를 담당해왔던 한·미 군사협력이 주안점이 될 것이다. 한·미방산회의는 한국의 방산물자 현대화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협력에 대해 집중토의될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에 터어키는 세계에서 방산장비 획득과 생산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곧이어 한국도 뒤를 따를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GNP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국이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세계적이고 전자제품은 경쟁국 일본시장에서 조차 팔리고 있다.

방산물자에 있어서도 한국은 발전을 하고 있다. 현대는 G.D의 도움을 받아 미국 M1 Abrams와 유사한 주전차 K-1을 생산하고 있다. K-1의 무게는 약 51톤이며 서독제 1천2백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몇몇 기업들은 한·미 공동협력의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

< Miltech 89/5 >